

WELCOME TO BUDAPES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후 2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담임목사 장원일
예배당 Dévai Bíró Mátyás tér 1, 1034
교육관 Székely Bertalan u. 11, 1062
<http://www.bpkchurch.com/>
06 30 475 0949



예배를 위한 기도

- * 최상의 예배를 위한 섬김이들의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 * 온 성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소서.
- * 선포되는 말씀이 존재와 가치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소서.
- * 중심을 담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흠향하십시오.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 *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예배와 양육에 집중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되게 하소서
- * 2024년 표어 -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되어 자라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한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깊고 친밀한 교제하겠습니다.
-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기쁨누리게 하옵소서.
- * 교회장립35주년 기념 사경회에 '복음을 누리자'에 성령중만으로 역사하십시오. 복음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 * 운영위원, 구역장들을 중만한 은혜요 온전한 연합에 정결히 사용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소서.
- * 새해에 주신 말씀을 확신하며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소서
- * 새해에는 온성도가 큐티하는 교회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되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웁니다. 큐티하는 부모와 자녀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에덴의 복을 누리는 가정되게 하소서.
- *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복음의 능력과 원리 잘배우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이 감당못할 하나님의 사람되게 하옵소서.
- * 산모의 일상회복과 아바가 영적가장으로 세워짐과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자라가는 아이 되도록 김상찬, 조수아 부부와 제인이 아필라, 김소연 부부와 요안나 김광민, 박지은B 부부와 예나 가정과 동행하십시오.

교회 일정 4월

- 05일(금) 브릿지데이
- 07일(주일) 성찬 / 세대통합예배 / 새가족환영
- 14일(주일) 소그룹 나눔 / 운영위원회
- 21일(주일) 장립35주년 사경회(19-21) / 식탁교제
- 24일(수) 아빠들의 예배
- 28일(주일) 여전도회헌신예배 / 소그룹나눔

교우소식

첫 나들이 - 김상찬, 조수아 부부의 자녀 제인

선교/협력 하는 곳

- 협력선교: 김한성선교사
- Jakab Béla pastor
- Óbudai Evangélikus Egyházközség
- 장학선교: Bandor Zolt / Balint
- 구제: Janosne Rado Andrea(2구역)
- Csernus Zsolt / Barbary Barbara(여전도회)
- László János Minárik(여전도회 & 1구역)

구역예배 참여 현황

- 1구역 3 / 8
- 2구역 6 / 8
- 3구역 2 / 8
- 4구역 / 8

헌금 안내

온라인 헌금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KDB 13555555-13552010-00017658
Koreaiak Magyarországi és Közép-Európai Keresztény

온라인 헌금항목 코드 :
감사10/ 섬일조20/ 선교30/
주일40/ 기타50



YouTube



Homepage

Vision 2025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1. 함께 예배하고
2. 함께 양육 받으며
3. 함께 봉사하고
4. 함께 교제하며
5. 함께 선교(전도)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네번째 이야기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되어 자라가는
성숙한 교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엡4:12)



주 일 예 배

(세 대 통 합)

예배로의 부름

내 마음의 한 자리 + 주님만이 왕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나의 하나님
 기대

고백과 간구

* 찬송 찬75장
 * 성시교독 교독문13번
 * 사도신경

찬양 찬455장
 대표기도 정연승어린이

말 씀

성경 봉독 삿 21:13-25
 찬 양 주님마음 내게 주소서 호산나성가대
 말씀 선포 장원일목사
(나의 소견을 너머)

봉 헌 봉헌송-유초등부
 1. 사랑이래요(윤정빈, 이어진, 이은형)
 2. 예수님 부활하셨다(전체)

성 찬

* 파 송 기대
 축 도 장원일목사
 광 고 *표는 일어서서

알 린 니 다

1.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2부활동은 성도의 교제시간으로 새가족환영식을 겸하여 진행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3. 돌아오는 주일은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4. 교회창립35주년 기념 사경회
 일사: 4월 19일(금) ~ 21일(주일)
 주제: 복음을 누리자
 강사: 김용석목사(독일 바이마르 한인교회 담임)
 일장:
 4월19일(금)저녁7시 30분(저녁6시부터 식사가능)
 4월 20일(토) 오전10시 30분 / 저녁7시
 4월 21일(주일) 오후2시 예배 후 전교인 식탁교제
5. 임명 - 영상&피피터: 주수민
 성가대: 김영지, 민시연
6. 헌물 - 헌금함, 필경대 (박동열집사가족)
8. 한봉지 신청서를 안내 데스크에 비치합니다.
 봉사를 원하는 분은 작성후 안내데스크로 전달해주세요
9. 부다페스트 한인교회로 내가 낸 세금1%를 기부하도록 작성된 서류를 안내데스크 또는 소그룹나눔때에 받아주세요.
 참여 및 동료 및 지인들에게 적극 권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위 서류를 전하고 이대로 신청하여 전산처리까지 되면 완료입니다.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고유번호: 0970

새벽기도회 월 - 금 5:30, 토 -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요일	찬송	본문	제목
월	447장	행1:12-26	마음을 같이 하여
화	183장	행2:1-13	성령의 중만함
수	191장	행2:14-21	모든 육체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
목	438장	행2:22-36	생명의 길
금	196장	행2:37-47	성령의 선물
토	91장	행3:1-10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월의 예배 섬김이

날 짜	대표 기도	예 배 안 내
4 / 7	정연승(어린이)	진교.봉사부
4 / 14	김미숙	
4 / 21	박동열	
4 / 28	정은진	

제자양육반 양육 일정

제 자 반	시 간
디아스포라제자반(남녀통합)	매주(수)밤8시 반
디아스포라제자반(여)	매주(수)오전10시
제자반기초(일대일)/교리반	매주(목)오전10시
청년제자반(일대일제자양육)	매주(금)저녁6시30분
청소년제자반(신앙기초세우기)	매주(수)저녁6시30분
새가족반(새가족멘토링)	매주(화)저녁8시

지난 주 예 목 드 린 분

감 사 (장원일,김영숙) (신영원,정은진) 박재현
 부활감사 (장원일,김영숙) (김제현,김지혜) (민성원,김영리)
 (박동열,김인선) (장국현,서정란) (최중건,임지영)
 김건 김영미 김지원 박재현 이현숙
 주일헌금 (장원일,김영숙) (정경인,황신자) 김영미 진순애
 최용수 무명
 심 일 조 (장원일,김영숙)
 선교헌금 (장국현,서정란)
 건 축
 은 라 인 심일조 - (정치화,박혜란)

총액: 칠십삼만이천오백포린트 +백유로

삿21:13-25 나의 소견을 너머

주일설교 잘 듣기 / 지난 주 결단 나누기 /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의 뜻 나누기 / 생활 속 적용과 결단 나누기 /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마무리하는 기도

1.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정하고 행한 일로 인해 겪은 고난은 무엇인가?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은혜를 사모할 틈이 열리고 은혜로 회복되었던 경우를 나누자.
2. 믿음은 크고 작고의 여부가 아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유무로 복음의 역사가 생활속에 판가름난다.
 십자가의 능력이 일상에도 동일하게 구원이요 사랑이요 능력임을 믿고 자기 십자가 진 자리에서 주께서 일으킨 변화를 나누자. (남편과 자녀 / 율터 / 학부도 / 성도간 / 친지와 가문 등)
3. 사람의 생각과 소견에 좋은 듯하나 복음 안에서 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게하신 은혜를 나누자.
 * 세상풍조를 따름과 내 소견을 멈추고 주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영적들과 결단 나누기

기도하기/ 죄인된 우리에게서 죄의 형벌인 지옥문을 닫으시고 생명길을 여신 주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하며 즐거웠던 습관적인 죄,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명분을 찾아다녔던 나의 의도를 회개합니다. 맥없이 어둠에 장악당하는 나에게 은혜베루시어 십자가를 품게 하셨으니 내 소견없이, 내 평생 주님의 뜻을 구하며 왕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복음에 스며드는 세상풍조를 분별할 지혜 주옵소서.
 말씀안에서의 교제와 가정과 교회를 주님손에 정결하게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나라 이루시옵소서.
 나의 왕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